

세 가지 화두로 살펴본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

이지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자체의 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와 소수종족에 관해 일정부분 다양성과 관용이 용인되는,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대표적 국가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종교와 소수종족에 대한 불관용(intolerance)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내 보여줌과 동시에 자유주의가 동반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7년 전반기에 있었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인 만큼, 복잡한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쟁점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예컨대, 무슬림 다수 사회에서의 기독교-화인 정치인의 종교적-인종적 대립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민주주의와 관용, 자카르타 주지사의 정치적 중요성, 2019년 대선의 대리전, 개혁적 신진세력과 기성세력의 대결 등 주요한 정치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다양한 양상을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라는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대중동원'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주제어 민주주의, 이슬람, 신성모독, 탈-진실, 정체성 정치

I. 들어가는 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점차적으로 공고화되고 있지만, 이는 자유주의가 수반된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커플링(coupling)되어 정착되는 것과 달리, 무슬림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디커플링(de-coupling)되어 있다(Menchik, 2016). 인도네시아는 '다양성 속

*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SNUAC-2017-002).

의 통일성(bhinneka tunggal ika)'을 국가 모토로 삼고 있지만 이 표현 자체에 국가적 한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상적인 바람일 뿐 현실 정치에서 다양성은 통일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대개는 이슬람에 기반한 사회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14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이하 조코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면에서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군부 출신도 정치 엘리트 출신도 아닌 조코위 대통령이 중앙정치 경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자카르타 주지사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는 자카르타 주지사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더불어 자신의 러닝메이트이자 부주지사였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Basuki Tjahaja Purnama, 이하 아혹)에게 주지사가 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화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이중약자(double minority) 신분의 주지사가 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아혹 주지사의 등장은 다양성과 관용(tolerance)이라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혹의 주지사 승계와 관련하여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혹이 화인이라는 점과 기독교도라는 점은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다.¹ 하지만 당시 반대 집회를 주동했던 이슬람방어전선(Front Pembela Islam, 이하 FPI)은 1,000명 남짓한 인원을 동원하는 데 그쳤고, 큰 이목을 끌지도 못했다. 2009년 국무장관 자격으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했던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 당신이 이슬람, 민주주의, 현대적인 것(modernity), 여성의 권리가 공존할 수 있을지를 알고 싶다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Landler, 2009).

2016년 9월 아혹이 플라우 스리부(Pulau Seribu)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쿠란 구절(5장 51절)에 대해 언급하기 전까지 그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주민 간담회에서 쿠란 구절을 인용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선거 패배와 함께

¹ 아혹은 1966년 수마트라의 남동쪽에 위치한 블리퉁(Belitung) 섬의 동쪽을 지칭하는 동블리퉁 지방의 화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중국 남부의 광저우에서 이주한 주석 광산 노동자였다. 그의 중국이름은 중만학(鍾萬學)으로 '아혹(阿學)'이라는 애칭은 그의 중국이름을 중국 남부지역의 방언인 객가어(客家語) 방식으로 발음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현직 주지사가 구속되는 다소 파격적인 결과가 초래됐다. 2017년 전반기에 있었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자카르타가 인도네시아의 축소판인 만큼, 복잡한 인도네시아 정치의 핵심 쟁점을 축약해서 보여준다. 예컨대 무슬림이 다수인 사회에서 기독교-화인 정치인의 종교적-인종적 대립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민주주의와 관용, 자카르타 주지사의 정치적 중요성, 2019년 대선의 대리전, 개혁적 신진세력과 기성세력의 대결, 거짓 뉴스, 정체성의 정치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결선투표가 치러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간주될 수 있는 연구논문으로는 림(Merlyna Lim)의 “증오의 자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적 고립, 인도네시아 부족 민족주의의 강화(Freedom to hate: Social media, algorithmic enclaves, and the rise of tribal nationalism in Indonesia)”(2017)와 서지원·전제성의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 기반 다지기와 ‘정체성의 정치’의 도전”(2017) 등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선거 캠페인과 소셜미디어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선거 캠페인 동안 유권자들이 보여준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있어서 선거 자체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전개와 정치적 함의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2016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현상 전반을 조코위 대통령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 선거에 대한 농밀한 분석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선거가 치러지기 전 상황까지 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혹의 ‘신성모독(?) 사건’(이하, 아혹 사건)²의 다양한 양상을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라는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인도네시아 정치와 이슬람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다. 세 개념은 이 사건에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각각의 렌즈로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구분된 영역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현실정치의 역할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세 개념을 사용하여 큰 틀에서 아혹 사건이 인도

² 본 연구에서는 아혹이 플라우 스리부 주민 간담회에서 쿠란을 언급한 것부터, 대규모 집회, 검찰의 기소, 두 차례의 주지사 선거, 구속까지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을 ‘아혹 사건’으로 칭한다.

표 1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관련된 핵심 단어

정치적 지향점	판차실라(pancasila)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다양성	관용	
	대선의 대리전·전초전	아혹 사건 (신성모독, 탈-진실)	기득권 세력 vs. 신진 세력
	종교		종족
현실정치	정체성 정치 강화		

출처: 필자 작성.

네시아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즉,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인도네시아 정치가 지향점으로 삼는 판차실라(pancasila), 다양성, 관용이 민주화 이후 한계를 드러내면서 오히려 현실정치에서는 종교와 종족을 통한 정체성 정치와 불관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반-아혹 집회에서 나타난 ‘대중동원(mass mobilizat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지 및 해외 언론매체와 기존의 문헌연구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II절에서는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전개와 선거와 관련된 핵심적 사안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절에서는 아혹 사건의 특징을 신성모독, 탈-진실, 정체성 정치라는 세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 더불어 주지사 선거에 대한 실제적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절에서는 III절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관계와 대중동원에 대해 조망할 것이다.

II. 2017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전개와 핵심 쟁점

1. 주지사 선거의 전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도에 주민이 직접 지자체 단체장을 뽑는 직선제 (Pemilihan Kepala Daerah; Pilkada, 이하 필카다)를 도입했고,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전국 동시 선거를 실시하였다. 한때 필카다는 뿌리도 내리기 전에 폐지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014년 국회는 지자체장을 뽑는 주체를 주민에서 지방의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³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뒤집고 직선제로 다시 되돌려 놓았다. 인도네시아 필카다의 최대 수혜자는 조코위 대통령과 아후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필카다가 없었으면 두 정치 신인이 자카르타 주지사과 부주지사,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주지사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필카다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그 최대의 피해자는 아후과 그를 지지했던 조코위가 되었다.

2016년 9월 21일 주지사 후보로 등록할 때까지는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아후의 재선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지만 선거에 출마한 3쌍의 후보군이 모두 전·현직 대통령 및 대통령 후보와 연관되어 있어서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 더욱이 선거는 집권 3년 차를 맞은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혁적인 정책 수립과 실천, 솔직하고 직설적인 캐릭터, 부정부패가 심각한 기존 정치인과 다른 깨끗한 이미지 등은 아후의 재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면은 9월 27일 북부 자카르타의 도서지역인 플라우 스리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쿠란을 인용하는 사건으로 급변하게 되었다. 아후는 간담회에서 “쿠란 5장 51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속았다면 내게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간담회 영상은 녹화되었다. 10월 6일 왜곡된 자막이 달린 영상이 유포되면서 아후에게 유리

³ 직선제 폐지 지지자들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선거 비용과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했던 상황들은 급변했다. 10월 10일 아훅의 공식적인 사과에도 불구하고 아훅을 규탄하는 집회는 견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되었다. 2016년 11월 4일 주지사의 퇴진 및 구속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자카르타 시내에서 일어났고, 이를 기점으로 연쇄적인 집회가 이어졌다. 아훅은 신성모독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12월 13일부터 그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지지율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5일 선거에서 아훅은 약 43%의 득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하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아훅은 조코위 정부에서 교육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과 결선투표를 치렀고, 결과적으로 58%를 득표한 아니스에게 16%라는 큰 차이로 패했다. 아훅의 몰락은 낙마에 그치지 않고 지난 5월 9일 자카르타 지방법원이 그에게 신성모독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함으로써 구속으로 귀결되었다.

2. 아훅 사건에 얽힌 주요 쟁점

아훅이 쿠란에 대해 언급하기 전부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전국적인 사안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지사 선거가 2019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혹은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1차 선거에서 경쟁한 3쌍의 후보군—(1)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실비아나 무르니(Sylviana Murni), (2)아훅-자룻 사이풀 히다얏(Djarot Saiful Hidayat), (3)아니스 바스웨단(Anies Rasyid Baswedan)-산디아가 우노(Sandiaga Salahuddin Uno)—은 각각 전직 대통령인 유도요노, 현직 대통령인 조코위, 2014년 조코위의 대선 라이벌이자 그린드라(Gerindra)당의 당수인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와 연합되어 있었다. 지지체의 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수도 자카르타의 상징성과 각각의 후보가 속한 정당 및 배후 인물들로 인해 자카르타 선거는 전 국가적 사안으로 확대되었다. 실제로 아훅의 낙마는 조코위의 대선 라이벌로 예상되는 프라보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선거 승리 후 그린드라당에서는 “우리는 자카르타를 장악했다. 2019년 대선에서는 프라보워”라는 배너를 세웠다(Topsfield, 2017).

하지만 아훅의 낙마가 조코위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 것인가는 조코위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조코위의 정치적 위상은 아후과는 다르며, 주지사 선거와 달리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또한, 무슬림이면서 토착인인 조코위는 근본적으로 아후처럼 정체성 정치에 취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2014년 조코위 효과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정당 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동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의 정치적 자산인 일반 대중에 대한 장악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것이다(서지원·전제성, 2017: 222). 조코위는 반-아후 집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집회와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을 포용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구속하기도 했지만 대중을 장악하는 데 실패했다(Mietzner and Devin, 2016).

표 2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후보군

주지사 후보군			
기호	1번 (결선 실패)	2번	3번 (당선)
정·부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육군 소령) • 실비아나 무르니(전 중부 자카르타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후)(자카르타 주지사) • 자룻 사이폴 히다얏(자카르타 부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니스 바스웨단(전직 교육문화부 장관) • 산디아가 우노(사업가)
정당 연합	민주당(PD), 개발통일당(PPP), 민족각성당(PKB), 국민수권당(PAN)	투쟁민주당(PDIP), 하누라당, 골카르당(Golkar), 나스뎀당(Nasdem)	그린드라당(Gerindra), 복지정의당(PKS)
*정당 연합 의석수	28(26.4%)	52(49.1%)	26(24.5%)
관련된 주요 정치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전직 대통령, 후보와 부자관계)	조코 위도도(현 대통령),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전직 대통령, 투쟁민주당 당수)	프라보워 수비안토(그린드라당 당수, 2014년 대선 대통령 후보)

*의석수는 지방 의회에서 각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연합의 의석수임.⁴

출처: 필자 작성.

⁴ 지차제장 선거 규정에 의하면, 지역 의회에서 22석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만이 후보자를 배출할 수 있다. 만약 22명 미만의 의원이 있는 정당의 경우 다른 정당의 지지를 득하여 22개의 의석을 충족해야 한다.

대선의 대리전과 유사한 맥락에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개혁성향의 신진세력과 기성정치세력 간의 대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조코위와 아후크 모두 기성정치와는 차별화된 개혁적인 정책을 시도하였고 기존 정치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데 노력했다. 이러한 개혁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는 이들의 정치적 자산이다.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조코위-아후크 조합의 승리는 엘리트 중심의 기존 정치세력에서 분리된 정치세력의 탄생이었다. 이러한 승리는 2005년부터 실시된 필카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치세력과 결탁되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가 후보시절에는 정치적 자산이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주지사를 승계하고 나면, 이러한 자산이 정치력 부재와 기존 정치세력의 견제를 불러오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Lee, 2017: 35). 기성정치세력의 입장에서 조코위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아후크의 재선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언론매체는 아후크 반대집회를 후원하는 세력으로 전직 대통령 유도요노를 거론하기도 했다. 세속적이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조코위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기득권 세력들이 이슬람과 관련된 이슈를 선점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후크 사건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정치와 종교, 다수종족과 소수종족이라는 근본적이고 고전적인 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후크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그의 발언은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안을 잠식했고 오직 정체성 정치만 부각시켰다.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서의 능력, 지난 임기 동안의 업적, 공약의 실현 가능성 같은 요소들은 전면에서 사라지고, 신성모독 여부, 비무슬림을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 토착민(pribumi)이 아닌 인물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3차례의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자카르타의 인구 문제, 삶의 질 개선, 교통 문제, 범죄 예방, 보건 정책, 학생들의 거리 폭력 등이 다루어졌지만 이는 선거의 핵심이 되지 못했다. 수하르토(Suharto) 시절부터 통일성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간주되었던 ‘SARA(suku-ethnicity, agama-religion, ras-race, antar-gorong-an-intergroup relations)’⁵가 여전히 선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

⁵ ‘SARA’는 인도네시아어로 ‘종족(suku)’, ‘종교(agama)’, ‘인종(ras)’, ‘조직·계층 간 관계(antar

다(Suryakusma, 2017). 결과적으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서 관용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III. 세 가지 화두로 살펴본 아혹 사건: 신성모독, 탈-진실(post-truth), 정체성 정치

1. 신성모독

아혹 사건이 역동적인 현실정치의 여러 사안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 사건의 근원은 쿠란에 대한 언급과 이 행동에 대한 신성모독죄 적용이다. 아혹은 2016년 9월 27일 자카르타 인근 플라우 스리부 도서지역의 프라무카(Pramuka) 섬 주민들과 대화하던 중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언급했다가 신성모독 논란에 휘말렸다. 간담회에서 아혹은 ‘향후 누가 주지사로 당선되느냐와 상관없이, 어민의 양식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던 중 자신이 주지사로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양식 프로그램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2007년 자신이 방카-블리퉁(Bangka-Belitung) 주지사 선거에서 쿠란 5장 51절 때문에 패배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리고 가벼운 어조로 “이 구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나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 그것은 여러분의 권리이며, 거기에 속아서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나를 뽑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다. 쿠란 5장 51절의 한국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믿는 자들이여,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그리고 보호자로서 택하지 말라. 그들은 서로가 친구들이라. 그들에게로 향하는 너희가 있다면 그는 그 무리의 일원이 거늘 하나님(알라)은 이 우매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니라.⁶

golongan)’를 합쳐서 만든 두문자어이다. 수하르토의 신질서(New Order) 시대에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위해 SARA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⁶ 쿠란의 한글 번역은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Translation of the Meanings of THE NOBLE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가벼운 농담조로 내뱉은 이 발언은, 편집된 동영상에 유포되면서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초래했다. 런던홍보대학(LSPR)의 자카르타 분교 강사로 알려진 부니 야니(Buni Yani)에 의해 유포된 동영상에는 아후의 발언이 자막으로 처리됐는데, ‘쿠란 구절을 이용하여 당신들을 속이려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문장에서 ‘이용’에 해당되는 인도네시아어 ‘pakai’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쿠란 자체에 속지 말라’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즉, 쿠란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니 이에 속지 말라는 뉘앙스를 조장했다. 실제로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한 비디오는 이슬람 보수주의자들의 엄청난 공분을 자아냈고, 이들 대부분은 아후의 발언을 전체 문맥상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쿠란을 모독했다는 것에만 현혹되어 매우 감정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감정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10월 10일 아후는 무슬림과 자신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하면서 자신은 절대 이슬람과 쿠란을 모독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Wijaya, 2016b). 하지만 FPI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아후를 신성모독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아후의 사과가 있는 다음날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올라마협의회(MUI)는 아후의 행위는 신성모독에 해당되고, 그 결과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쿠란의 5장은 분명하게 비무슬림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이 장(surah)을 근거로 해서, 올라마(신학자·법학자)는 무슬림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의무임을 모든 무슬림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다. 셋째, 모든 무슬림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구절의 진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넷째, 비무슬림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쿠란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 다섯째, 비무슬림이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쿠란의 구절을 인용한 올라마를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올라마와 이슬람 사회에 대한 모독에 해당한다(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2016).

《*QURAN in the Korean language*》를 참조하였고, 비문으로 간주되는 ‘보호자로서’는 ‘보호자로서’로 수정하였다.

FPI를 비롯한 급진 이슬람 단체들은 성난 군중을 등에 업고 ‘이슬람수호행동(Aksi Bela Islam)’이라는 아후에 반대하는 일련의 집회를 개최했다. 아후이 구속되기까지 크고 작은 집회가 계속되었는데, ‘Aksi Bela Islam II’라고 불리는 2016년 11월 4일 집회와 ‘Aksi Bela Islam III’로 불리는 12월 2일 집회에 각각 약 15만~20만 명, 50만~75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회이다. 2017년 4월 19일 결선투표에서 패배한 아후는 5월 9일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형법 156조 및 156조 (a)항의 종교모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대통령령⁷으로 종교모독죄(Undang Undang Pendodaan Agama)를 제정했고, 1969년에는 이를 형법으로 승격시켰다. 종교모독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최대 5년 구속형이 주어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 형법 156조 (a)항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되는 종교에 대해, 의도적 혹은 공적으로 증오, 오용, 모독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아후 재판의 주심 판사인 드위아르소 부디 산티아르토(Dwiarsa Budi Santiarto)는 “종교 사회의 일원으로서, 피고는 피고 자신의 종교를 포함해서 종교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함의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배석판사(Abdul Rosyad)는 형벌에 대한 근거로 “피고는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사회적) 동요를 일으켰고, 무슬림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언급했다(Lamb, 2017b).

이는 검찰의 기소내용—아후는 신성모독이 아닌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을 모독한 것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다—에 비해 무거운 형벌이다.⁸ 아후 지지자들은 재판부가 무슬림 강경파가 주도한 마녀사냥에 편승해 무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신성모독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이슬람 과격단체인 FPI의 리지크 시합(Rizieq Shihab) 의장의

⁷ Presidential Decree NO 1/PNPS/1965 on the Prevention of the Misuse/Insulting of a Religion.

⁸ 아후는 처음 항소의 뜻을 밝혔지만, 5월 23일 그의 처(Veronica)가 대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하지 않고 선고 받은 대로 따르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길이라 생각했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진술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⁹

신성모독과 관련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쿠란 5장(알 마이다) 51 절의 ‘auliya’라는 단어의 해석과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죄의 법률적 문제점이다. 51절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auliya’로 삼지 말라’는 부분에서 아랍어 ‘auliya’는 상황에 따라 ‘지도자’ 혹은 ‘친구’, ‘동지’, ‘동맹’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Marcoes, 2016).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쿠란에서는 ‘auliya’에 해당되는 단어가 지도자라는 뜻의 ‘pemimpin-pemimpin’으로 번역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auliya’가 지도자로 번역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쿠란 5장 51절의 ‘기독교인과 유대인을 지도자로 선택하지 말라’는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¹⁰ 예컨대 경찰이 아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5명의 현지 전문가들에게 아혹의 발언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는데, 3분의 2가량이 신성모독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University of Melbourne, 2016). 쿠란의 현대적 해석에서 ‘auliya’를 ‘지도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이 단어는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슬림이 비무슬림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상황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51절이 기록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무함마드가 생존했던 시절에 도시 국가인 메디나(Medina)가 주위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경우 유대인과 무슬

⁹ 인도네시아 인권변호사인 루비스(Todung Mulya Lubis)는 아혹 재판의 결과에 대해 “그 그룹(FPI)의 리더인 리지크 시함은 전문가로 간주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공공연하게 아혹의 신성모독을 비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재판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다. 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덧붙여 “판사들이 이슬람 단체인 인도네시아 올라마협의회(MUI)의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송구스럽지만 그들은 이미 재판 전부터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문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Lamb, 2017b).

¹⁰ 쿠란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문자적 해석과 상황적 해석이 존재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접근 모두가 사용된다. 가족 문제와 관련된 상속의 경우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황적 해석이 주로 사용된다. 예컨대 쿠란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상속의 절반을 받아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남성이 여성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문자적 해석을 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녀들은 우선 쿠란의 방식대로 유산을 나누고, 남자 형제가 다시 자신의 유산의 일부를 여자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서 동등한 분배가 되도록 한다(Marcoes, 2016).

림이 함께 방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메디나가 실제로 공격을 받았을 때 유대인이 이를 배반했고, 그 이유로 쿠란에서 무슬림에게 유대인과 동맹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Fachrudin, 2017).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그리고 맥락적 상황 없이 문자 그대로 51절을 해석하면 모든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 및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한편 신성모독죄의 법률적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신성모독죄가 인도네시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에 대해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¹¹ 사실 2009년 법률자문 및 인권분야 NGO 단체 연합과 대학교수를 포함한 저명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신성모독죄에 대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요청했다. 이들은 신성모독죄가 인도네시아 헌법 29조와 28E조, 그리고 유엔의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고, 헌법 28(2)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신성모독죄가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negara hukum)라는 법원칙(rule of law)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특수성을 언급하면서 신성모독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는 신성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인도네시아에서의 종교 실천(practice)은 다른 국가와는 차이가 있고, 인도네시아는 종교와 국가의 관계가 분리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의 근거로 밝혔다(Crouch, 2012: 17-23, 40). 아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사면위원회는 신성모독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됨을 주장하면서 재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신성모독죄에 대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화 이후 이와 관련된 사건의 횡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1965년 신성모독죄가 제정된 이후 1998년까지, 즉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억압되던 수하르토 집

¹¹ 2009년 NGO 연합과 몇몇의 저명인사는 인도네시아 신성모독죄가 헌법(28E조, 2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3개의 NGO와 함께 신성모독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기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보고서(legal brief)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권 동안 오직 10명에게만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었는데, 오히려 민주화된 이후인 2005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106명이 신성모독죄라는 미명 하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Amnesty International, 2014).

위에서 기술한 신성모독죄의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아후의 구속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그의 발언이 과연 쿠란을 모독할 ‘의도’가 있었는가라는 것이다. 2016년 12월에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5%가 아후의 발언이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답했지만, 이들 중 85%가 아후의 발언이 확실히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Lamb, 2017b). 아후는 형법 156조 (a)항에 의해 처벌되었는데 이 항에 따르면 “종교에 대해, 의도적 혹은 공적으로 증오, 오용, 모독하는 형태로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에 처한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했던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아후가 쿠란을 모독하고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고, 아후를 고발한 사람 중에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간담회에 있었던 21세의 젊은 주민(Abdi)은 다른 몇몇 주민과 함께 아후의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아후가 나의 종교를 모욕했다면, 하비브(Habib, FPI의 지도자)가 고소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아후씨를 칼로 찔렀을 것이다.” 덧붙여 아후의 발언과 관련하여 “어느 부분이 모독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 나와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Kompas, 2017.5.1).

민감한 시기에 아후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인 이슬람 경전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분명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다. 더욱이 본인의 정체성이 늘 공격의 대상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그의 발언은 분명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쿠란 5장 51절에 대한 해석은 추후 비무슬림이 고위 공직자가 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주장하는 종교적 관용과 다양성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 수사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

2. 탈-진실(post-truth)

앞에서 살펴본 신성모독 사건은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짜 뉴스의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탈-진실(post-truth)’을 선정하고, ‘post-truth’에 대해 이 단어는 형용사로서 “대중의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이 개인의 감정과 신념에 호소하는 것보다 영향력을 덜 끼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relating to or denoting circumstances in which objective facts are less influential in shaping public opinion than appeals to emotion and personal belief)”이라고 정의했다(Flood, 2016). 즉, 탈-진실이란 실제의 사실보다 개인의 감정이나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방송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최근 각종 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매우 적극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거짓 정보는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확산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전체 인구 2억 6천만 명 가운데 약 9천 6백만 명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다(Amirio, 2017). 아혹 사건의 발단도 부니 야니가 아혹 연설의 자막을 의도적으로(혹은 실수로) 잘못 기입한 것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서 시작되었다.¹² 1시간 40분가량의 간담회 동영상을 시청한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의 언어학 전문가인 라하유 수르티아르티(Rahayu Surtiarti)는 아혹의 발언에서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어떠한 말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Wijaya, 2017).

거짓 뉴스는 2014년 대선 때에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조코위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온건한 이슬람 신자인 조코위가 중국계 기독교인이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선거운동 초반 라이벌 후보와 큰 차이로 벌어졌던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고 네덜란드의

¹² 부니 야니는 정보 및 전자 거래법(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 28조 2항과 32조 1항을 위반한 혐의로 반둥(bandung)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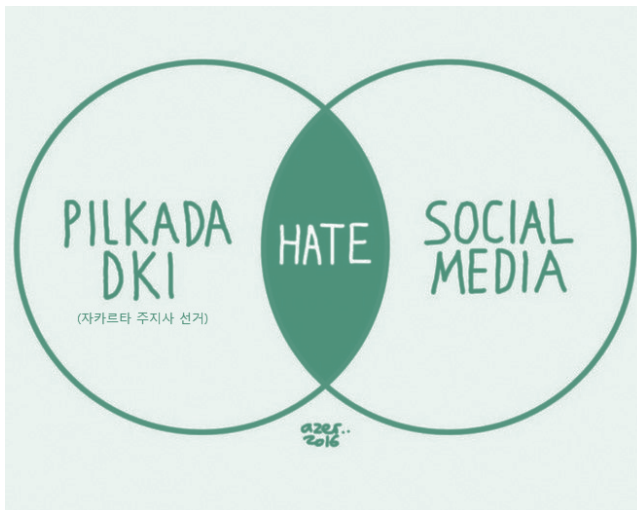
식민지배 때부터 화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지속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화인이라는 소문은 지지울 확보에 치명적이었다. 결국 조코위는 대선을 3일 앞두고 자신이 무슬림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상의 ‘네거티브 콘텐츠(negative contents)’에 대한 신고 수가 1,572건에 달했다(*Indonesia Investments*, 2017.11.30).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거짓 뉴스는 다음과 같다.

- 중국인들이 어업권 분쟁에 대한 보복으로 병균을 퍼뜨리고, 생화학 무기로 인도네시아 경제를 파괴한다(*Reuters*, 2017.12.16).
-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르러 현지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Tribun News*, 2016.12.23).
- 중국 본토에서 아혹을 지키기 위해 500명이 입국했다(*Coconuts Jakarta*, 2016.12.23).
- 반 아혹 집회를 주도했던 FPI의 지도자 하비브(Habib Rizieq)가 인도네시아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Voa News*, 2016.12.16).
- 인도네시아 최초의 시(자카르타) 소유의 이슬람 사원이 건설되었는데, 그 모양이 십자가와 닮았다. 이는 아혹의 기독교화 영향이다(*BBC News*, 2017.4.18).

위에 기술한 모든 뉴스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첫째 거짓 뉴스의 경우 부분적으로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2017년 1월 5명의 중국인 이민자가 박테리아에 감염된 고추를 수입하여 밭에 심었다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이 생화학 무기로 어업권 분쟁에 대한 복수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확산되었다. 고추씨에서 검출된 박테리아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농작물에 무름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Reuters*, 2017.12.16). 둘째 뉴스인 중국인 불법 이주 노동자가 1천만 명에 이르는 것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는 2만 1천 명에 불과하다. 이는 매우 작은 수치다. 너무 많은 0을 붙이지 마라”고 밝히면서,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강조했다(*Tribun News*, 2016.12.23). 1천만 명이라는 수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가 아닌 인도네시아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넷째, 다섯째 뉴스는 사실 무근의 거짓이다.

가짜 뉴스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러한 가짜 뉴스의 상당수가 불특정한 일반인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세력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라센(Saracen)’이라는 조직이 2015년부터 자체 뉴스포털과 페이스북 그룹 기능 등을 이용해 특정한 개인, 단체, 경찰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겨냥한 가짜 뉴스와 증오 발언을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라센은 80만 개에 달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아후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퍼뜨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아후 진영에서 생산된 가짜 뉴스, 흑색선전, 원색적인 비난도 있다. 하지만 가짜 뉴스가 지닌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후 진영에서 생산된 것은 크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았다. 이는 아후가 지닌 태생적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이 거짓 뉴스에 아주 취약하기 때문이다.



출처: *BBC News*, 2017.

그림 2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소셜미디어의 수렴¹³

¹³ 2017년 4월 18일 BBC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삽화로서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와 소셜미디어

아후과 관련된 거짓 뉴스가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그의 이중약자라는 정체성이 ‘침묵의 나선(the spiral of silence)’(Noelle-Neumann, 1974) 현상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생각과 부합할 경우 그러한 의견을 더욱 공개적으로 개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신의 것이 다수의 것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과 고립 등을 회피하기 위해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주지사 선거에서는 종교적인 문체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었다. 선거에서 소셜미디어는 언론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증오의 자유를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자신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Lim, 2017: 420). 타임(TIME)지는 아후의 신성모독과 관련된 기사의 제목으로 ‘밈(meme)¹⁴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곳(where memes could kill)’이라고 묘사한다.

3. 정체성 정치

인도네시아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가짜 뉴스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로부터 후보자의 공약과 능력에 대해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고 오직 후보자의 정체성에 호소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주지사 선거는 지난 임기 동안 아후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후보인 아니스에 대한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고 공약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신성모독이라는 블랙홀에 다른 사안들은 주변화 되었고 종교적 잣대와 정체성만이 후보를 검증하는 기준이 되었다. 현지의 한 언론 매체는 4월 주지사 선거를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추

가 수렴하는 부분은 증오라고 비평하고 있다.

¹⁴ ‘meme’이란 유전적 방법이 아닌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를 뜻하는 말로서,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저서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 남의 것을 모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생물학적인 용어인 유전자의 발음 ‘gene’에 빗대어 만든 용어이다. 밈은 사람들 마음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신을 복제한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면 그 의견이라는 밈은 머리에서 복제된다.

악하고 분열적인 사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정체성 정치는 인도네시아 국가 운영의 이념과 철학인 ‘판차실라’와 ‘다양성 속의 통일성’과도 상충한다. 사실 다양성 속의 통일성은 사실과 희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¹⁵ 이것은 중앙의 통제와 권위에 대한 크고 작은 도전이 항상 내재되어 지역적이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쉽게 사라질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오스본, 2003: 225). 인도네시아를 묘사할 때 흔히 인용되는 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진 특징들이 새로운 국가를 수립하는 통치자들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했다. 1970년대 초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역임했던 프링글(Robert Pringle)의 표현에 따르면 “수카르노의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 그의 끊임없는 국민 통합에 대한 집착이 더 강했으며”, 수하르토에게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가적 자산임에 앞서 일련의 위협이었다”(Pringle, 2010: 81, 85).

화인이면서 기독교인이라는 아혹의 정체성은 인도네시아 국민 통합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인 종족과 종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1998년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길으로는 화인에 대한 토착민(pribumi)의 적대감이 누그러지고 화인들도 폭동(1998년 5월)의 트라우마를 서서히 극복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하르토 시절의 강제 동화정책이 폐지되고, 중국의 춘절(春節)이 국경일로 제정되고, 폐지되었던 중국어 교육도 다시 부활했다. 게다가 최근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제 관계도 매우 우호적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국가적 사업인 인프라 건설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해상 실크로드를 서로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이번 주지사 선거를 통해 현지인과 화인의 불편한 관계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나 분출될 수 있는 용암과 같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종교와 관련된 정체성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에게 종교는 신

¹⁵ ‘bhinneka tunggal ika’는 일반적으로 영어로 ‘unity in diversity’로 번역되고, 한국어로는 ‘다양성 속의 통일성’으로 번역된다. 하지만 좀 더 어구에 충실한 번역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둘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이다. 이 표현은 14세기 고대 자바어로 쓰인 서사시에 등장하는 것으로서, 당시 마타람(Mataram) 제국에 두 가지 종교인 시바교(Shivaism)와 불교가 공존했는데 둘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것이다. 따라서 ‘bhinneka tunggal ika’는 암묵적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갈등을 시인하고 있다(Pringle, 2010: 59-60).

양의 문제인가 정치적 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 파라 마디나(Paramadina) 대학의 총장이었고 미국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니스는 비교적 온건한 무슬림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는 이전에 어떠한 정치적 성향의 이슬람 조직에 가담한 적이 없으며 이슬람과 관련된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 아니스와 함께 부주지사 후보였던 우노(Sandiaga Salahuddin Uno)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한 명으로서 초등 및 중등교육을 각각 기독교와 천주교 학교에서 받았고, 미국에서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 살았었다. 아니스와 마찬가지로 우노도 어떤 이슬람 정치조직이나 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Rakhmat, 2017). 하지만 아후이 쿠란을 인용한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기 시작하자 아니스의 선거 전략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기실 12월 15일에 있었던 1차 선거에서 무슬림을 자신의 주요 지지층으로 삼았던 후보는 아니스가 아니라 아구스였다. 하지만 아구스가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하자 아니스는 아구스를 지지했던 표를 얻기 위해 이슬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선거 캠페인 동안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자카르타는 마땅히 무슬림 주지사를 필요로 한다.”(Cocca, 2017)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성향의 무슬림을 공략했다. 선거기간 동안 아후이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FPI 지도자를 여러 차례 만나고, 이슬람 의복을 연상케 하는 흰색 셔츠와 모자를 착용했다. 다수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에게 비무슬림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아니스에게 투표한 여러 유권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자신들이 반-중국계와 반-기독교도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무슬림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좋은 무슬림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Lim, 2017: 421). 자카르타에 있는 몇몇 이슬람 사원에서는 신성모독자를 지지하는 무슬림의 경우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현수막을 사원 앞에 달았다. 실제로 노모가 죽은 한 가족이 이슬람 사원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월 15일 선거에서 아후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Jakarta Post, 2017.3.11).¹⁶ 한 조사기관(the Saiful Mujani Research and Consulting)에 따르면 전체 유

¹⁶ 선거 기간 중 사망한 여인은 누딘(Nudin)으로서,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투표는 비밀투표이지만 누딘은 거동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투표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

권자 중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유권자의 수는 16.7%인데, 아니스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에서 종교적 이유로 그를 선택한 유권자의 수는 32.4%에 달한다(Syailendra, 2017).

아니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종교를 적절히 잘 이용하였고, 그 결과 아구스를 지지했던 표를 가져옴으로써 예상보다 큰 격차로 아혹을 이길 수 있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 첫발을 디딘 아니스에게 정체성으로 분열된 사회분위기는 축복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당수의 표는 그가 아혹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무슬림이고 화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정체성을 이용한 정치적 동원은 인도네시아 사회를 더욱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현상을 진영 논리라는 틀 속에서만 보게 만든다. 예컨대 아혹을 지지했던 진영은 아혹의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는 것은 건국이념인 ‘판차실라’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아니스 진영은 아혹의 발언이 이슬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차실라’에 상충한다고 주장한다.

4. 주지사 선거에 대한 실제적 분석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화두를 통해 아혹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아혹의 쿠란 언급으로 인해 선거 공약, 후보의 자질 및 역량, 자카르타 주요 현안 같은 선거의 핵심 사항들이 주변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위해 신성모독 논란 외에 선거에 영향을 준 주요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혹이라는 인물의 정치적 역량 및 이미지, 아니스의 정치적 역량, 선거 공약 등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종교적 관점, 혹은 소수종족이라는 정체성만을 부각시키면 선거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자카르타에서 아혹이 추진했던 정책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 그의 거침없는 의사소통 스타일, 중요한 시기에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아혹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온건한 무슬림 유권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아혹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

이 그녀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보게 되었다.

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단순히 소수계층(기독교-중국계)의 정치적인 ‘리트머스 테스트’로만 프레임 지우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Parameswaran, 2017).

아훅은 부주지사 시절부터 깨끗하고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주지사로 지낸 2년 동안의 업적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교육, 보건, 수도정수사업, 복지 행정, 대중교통 서비스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카르타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스마트 카드(Kartu Jakarta Sehat),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고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스마트 카드(Kartu Jakarta Pintar), 홍수 범람지대에서 강제 이주된 주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건설(Rusunawa),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RT와 LRT 건설, 전자예산(e-budgeting) 시스템 구축 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임대 아파트 건설은 칠리웅(Ciliwung)강 재정비 사업과 함께 논란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훅의 추진력과 능력은 높이 평가받았다. 2016년 5월에 국가개발계획부(Bappanenas)가 주최하는 2013~2015년 최고의 행정도시 수상식에서 아훅의 자카르타 주 행정부는 총 7개 부문 중 4개의 부문에서 최우수상¹⁷을 수상하기도 했다(Wijaya, 2016a). 그러나 아훅의 거침없고 직설적인 화법은 늘 자신의 주변에 적을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조심하고 ‘표면적 화합(rukun)’¹⁸을 중시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아훅의 행동은 다소 예외적인 것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아훅의 또 다른 약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추진했던 주요 사업이,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중산층에는 우호적이고 가난한 서민에게는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

¹⁷ 자카르타 행정부가 수상한 네 개의 최우수상(the best governance award)은 우수 개발계획, 우수 혁신개발계획, 새천년개발목표(MDG) 추진 최고 득점, 새천년개발목표 최우수 성취상이다(Wijaya, 2016a).

¹⁸ 김형준(2008)은 그의 논문 “인도네시아 자바인의 수평적 사회관계”에서 루쿤의 개념을 “개인이 타인과 진정으로 화합함으로써 개인 간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개인의 내적 태도와 관계 없이 갈등이나 불만이 외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제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굳게 믿었던 중산층 고학력자들의 표가 이탈되면서 아후은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다(Noerdin, 2017). 결과적으로 아후은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한 과신과 저소득 서민층 공약 실패가 신성모독 논란과 함께 패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현지의 싱크 탱크인 CSIS(the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에 따르면 심각한 정치 갈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중·상류층 유권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를 지지할지를 밝히는 것을 꺼려했다고 한다(Tenggara Strategics, 2017). 한편 유권자의 정당 충성도에서 아후은 지지자들보다 아니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아구스를 지지했던 정당 중 개발통일당(PPP)은 아후을 지지했고, 국민수권당(PAN)은 아니스를 지지했으며, 민주당(PD)과 민족각성당(PKB)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일간지인 콤파스(Compas)에 의해 실시된 2차 투표 출구조사에 따르면, 개발통일당(PPP)이 공식적으로 아후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실제 유권자들의 정당 충성도는 낮았다. 결론적으로 아후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정당 중에서 투쟁민주당(PDI-P)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지지자들 상당수는 아니스에게 투표하였다. 한편 아니스는 아후과 달리 그린드라당과 복지정의당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았고, 아후의 신성모독 논란으로 인해 2차 투표에서 부동산 공약에 유리했다. 그의 이슬람에 기반한 선거 전략은 1차 투표에서 아구스에게 투표했던 무슬림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적이었다. 아니스는 과거의 온건한 무슬림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무슬림의 모습으로 변모함으로써 신성모독 논란으로 형성된 ‘대중동원’을 자신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더불어 그의 학자적인 이미지와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것은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선투표를 앞두고 치러진 TV 토론에서 양측 후보의 주장이 대립된 주요 사안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 북부 자카르타 방조제 건설 및 간척 사업(일명 가루다 프로젝트) 등이 있다. 아니스는 아후이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건설보다는 자카르타의 외곽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후은 자카르타 주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할 충분한 재원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아니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루다 프로젝트의 경우 아후은 지역 주민들을 미래의 자연재

해로부터 보호하고 북북 자카르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라고 주장한 반면, 아니스는 논란이 되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하는데, 이는 인근 주민들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프로젝트의 수혜가 일부 주민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들은 신성모독 논란으로 크게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IV. 나오는 말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인도네시아는 경제적으로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했다. 인도네시아는 지자체의 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선출하는 제도적 민주화를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와 소수종족에 관해 일정부분 다양성과 관용이 용인되는, 민주주의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대표적 국가로 여겨졌다. 하지만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종교와 소수종족에 대한 불관용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자유주의가 동반되지 않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정치의 주변부에 위치했던 강성 이슬람 세력이 민주화 이후 점차 자신들의 이념과 가치를 사회전반에 주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비단 강성 이슬람뿐만 아니라 온건한 이슬람 단체로 구분되는 단체에서도 목격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인도네시아 주류 무슬림에 반하는 소수계층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혹 사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에서 관용의 범위와 한계가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준 강성 이슬람 조직의 정치적 압력 행사를 가지고 성급하게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혹은 이슬람의 보수화를 거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혹을 규탄하는 일련의 대규모 집회가 이슬람 강경노선을 표방하는 조직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서 이들이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선불리 예상할 수는 없다. 아혹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고려하면, 선거 기간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인도

네시아 사회의 보편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한 사건의 특수성에 더 무게를 두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후의 이중약자 정체성, 자바인에게 보기 드문 거침없는 언변, 과감한 개혁 추진 등은 아후이 늘 자신의 주변에 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민감한 시점에, 그것도 무슬림이 가장 중요시하는 쿠란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현명한 행동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인 국민통합, 민주주의의 한계,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공존 등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재임 가능성이 높은 현직 대통령이 지지하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재임기간에 신성모독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그 구속 사유가 쿠란의 해석에 대한 자신의 소신 때문이라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다. 이는 향후 중요한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비무슬림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종교의 관용이라는 것에 기준이 무엇인지, 그 한계는 어디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겉으로는 6개의 공식 종교를 인정하고 세속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을 바탕으로 한 사회질서에 위협이 되거나 이슬람적 가치에 충돌하는 것은 다양성에 포함될 수 없다.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판결이 특정 종교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성모독죄에 대한 법률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끊임없이 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권위주의 정권에서 정치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이슬람 세력이 제도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 발전이 오히려 정교분리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신성모독은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선거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체성 정치를 초래했고 미디어를 이용한 거짓 뉴스는 이를 실현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화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무슬림이 인구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특성은 침묵의 나선이론을 극대화 시켰다. 대다수의 인도네시아인이 온건한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격리 등을 두려워하여 침묵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보수적 성향의 무슬림이 전체사회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아후의 화인 정체성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종종 이슬람 급진주의와 외국인(비무슬림)에 의해 토착민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서로 장단을

맞추어서 진행되기도 한다. 1998년 민주화 이후 토착인-화인 갈등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지사 선거를 통해 토착민에게 화인은 여전히 다양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성 정치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진영 논리라는 틀 안에 가두기 때문에 후보와 공약을 검증해야 하는 선거의 본질을 주변화시킨다.

향후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변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이슬람 강경론자들이 반아후 집회를 통해 보여준, ‘대중동원(mass mobilization)’ 능력이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 미디어와 함께 대중동원은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새롭게 주목해야 할 점이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소통 환경에 변화를 일으켰다. 페이스북을 통해 전파된 동영상은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를 순식간에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대시켰고, 이를 이용한 급진 이슬람 세력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최근에 발달한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쌍방향성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정보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되어 대중을 특정 시간과 장소에 집결시키고 거대 담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로 인해 현대 정치에서 대중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 기술과 종교적 담론이 혼합되어 일어날 수 있는 대중동원은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다.

투고일: 2017년 12월 4일 | 심사일: 2018년 1월 9일 | 게재확정일: 2018년 2월 2일

참고문헌

- 김형준. 2008. “인도네시아 자바인의 수평적 사회관계: 루꾼 개념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2), 1-32.
- 서지원·전제성. 2017. “인도네시아 2016: 조코위의 기반 다지기와 ‘정체성의 정치’의 도

- 전.” 『동남아시아연구』 27(2), 213-243.
- 오스본, 밀턴. 조홍국 외 역. 2000. 『한 권에 담은 동남아시아 역사』. 서울: 오름.
- Amirio, Dylan. 2017. “Indonesia Urges Facebook to Open Local Office.” *Jakarta Post* (February 15).
- Amnesty International*. 2014. “Prosecuting Beliefs: Indonesia’s Blasphemy Laws.”
- Basuk, Tobias. 2017. “Indonesia’s Political Islam and Liberalism.” *Jakarta Post* (April 6).
- Batu, Safrin La. 2016. “Quranic Interpretation Issue Continues Amid Election Lead Up.” *Jakarta Post* (October 25).
- Coca, Nithin. 2017. “The Fall of Ahok and Indonesia’s Future.” *Diplomat* (April 21).
- Coconuts Jakarta*. 2016. “Rumors There Are Already 10 Million Chinese Workers In Indonesia on the Rise, Jokowi Tells Police to Catch Hoax Spreaders.” (December 23).
- Crouch, Melissa A. 2012. “Law and Religion in Indonesia: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Blasphemy Law.” *The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7(1): Article 3.
- Fachrudin, Aziz Anwar. 2017. “Persisting Problems From the al-Maidah 51 Debate.” (October 18).
- Flood, Alison. 2016. “Post-truth’ Named Word of the Year by Oxford Dictionaries.” *Guardian* (November 15).
- Indonesia Investments*. 2017. “Indonesia Wants Facebook to Open Local Company in Hoax Combat.” (November 30).
- International Christian Response*. 2016. “Indonesia Faces Defining Moment in ‘Blasphemy’ Protests Against Christian Governor Ahok.” (December 2).
- Jakarta Post*. 2017. “Deceased Ahok Voter Denied Last Rites.” (March 11).
- Lamb, Kate. 2017a. “Jakarta Governor Election a ‘Litmus Test’ of Indonesia Islam.” *Guardian* (February 14).
- Lamb, Kate. 2017b. “Jakarta Governor Ahok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for Basphmy.” *Guardian* (May 9).
- Landler, Mark. 2009. “Clinton Praises Indonesian Democracy.” *New York Times* (February 18).
- Lee, Jihyouk.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Indonesia’s Global Maritime Axis and

- Infrastructure Development Plan under the Jokowi Administr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0(1), 27-52.
- Lim, Merlyna. 2017. “Freedom to Hate: Social Media, Algorithmic Enclaves, and the Rise of Tribal Nationalism in Indonesia.” *Critical Asian Studies* 49(3), 411-427.
- Marcoes, Lies. 2016. “Interpreting the Qur’an: Ahok’s Blunder.” <http://indonesiaatmelbourne.unimelb.edu.au/interpreting-the-quran-ahoks-blunder/>(검색일: 2017. 11. 26).
- Menchik, Jeremy. 2016. *Islam and Democracy in Indonesia: Tolerance Without Libera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etzner, Marcus and Devin T. Stewart. 2016. “Indonesia’s Growing Islamist Populism.” <https://www.carnegiecouncil.org/studio/multimedia/20161219-indonesias-growing-islamist-populism>(검색일: 2017. 11. 29).
- Noelle-Neumann, Elisabeth. 1974. “The Spiral of Silence: A Theory of Public Opinion.” *The Journal of Communication* 24(2), 43-51.
- Noerdin, Edriana. 2017. “Why the Middle Class Switched to Anies.” *Jakarta Post* (April 27).
- Parameswaran, Prashanth. 2017. “The Trouble With Indonesia’s Ahok Test.” *Diplomat* (February 18).
- Pringle, Robert. 2010. *Understanding Islam In Indonesia: Politics and Diversity*.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 Rakhmat, Muhammad Zulfikar. 2017. “Identity Politics And Anies Baswedan.” *International Policy Digest* (May 01).
- Reuters. 2017. “China Alarmed As Chili ‘Conspiracy’ Heats Up Indonesians.” (December 16).
- Setijadi Charlette. 2016. “Ethnic Chinese In Contemporary Indonesia: Changing Identity Politics and the Paradox of Sinification.” *Perspective* 2016(12).
- Suryakusma, Julia. 2017. “Politicization of Religion: Believe, But Don’t Fight About It.” *Jakarta Post* (November 30).
- Syailendra, Emirza Adi. 2017. “2017 Jakarta Election and Indonesia’s Democracy- Jakarta’s Contentious Election: What Anies Baswedan’s Victory Means.” *RSIS*, April 20.

- Tribun News*. 2016. "Jokowi: Yang Bersuara Banyak Pekerja Tiongkok Masuk Indonesia Itu Ngitungnya Kapan?." (December 23).
- Tenggara Strategics. 2017. "BACKGROUND: After the Jakarta Election." *Jakarta Post* (May 16).
- University of Melbourne. 2016. "Bigger Than Ahok: Expecting the 2 December Mass Rally." (December 17). <http://indonesiaatmelbourne.unimelb.edu.au/bigger-than-ahok-explaining-jakartas-2-december-mass-rally/>(검색일: 2017. 11. 29).
- Voa News*. 2016. "Fake News Roils Indonesian Politics." (December 16).
- Wijaya, Callistasia Anggun. 2016a. "Jakarta Wins Four Best Governance Awards." *Jakarta Post* (May 11).
- Wijaya, Callistasia Anggun. 2016b. "Ahok Apologizes to Muslims for Alleged Defamation." *Jakarta Post* (October 10).
- Wijaya, Callistasia Anggun. 2017. "Ahok's speech not blasphemous: Expert." *Jakarta Post* (March 21).

Abstract

An Analysis on 2017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Issues of Blasphemy, Post-truth, and Identity Politics

Jihyouk Lee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in SNU

Indonesia has been well on its way to become a full democracy and showed steady economy growth since the 1997-1998 Asia financial crisis, which severely hit not only Indonesia's economy but also its politics. Since then, Indonesia has established direct electoral system, in which citizens can directly elect their president, governors, mayors, and district heads. It seems that Indonesia is one of the most ideal countries where democracy, Islam, and modernity can thrive together harmoniously. The country is the world's most populous Muslim-majority democracy and under the principle of "unity in diversity," other religions have long co-existed peacefully. The recent 2017 Jakarta gubernatorial election (Pilkada DKI) campaign, however, has cast doubt on its reputation for religious tolerance and cultural diversity. The 2017 Pilkada DKI was one of Indonesia's most polarizing elections. With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ses the Pilkada DKI with a focus on blasphemy, post-truth, and identity politics.

Keywords | Democracy, Islam, blasphemy, post-truth, identity politics